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셀프리더십이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

이미영^{1,*} · 김소명^{2,†}

¹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020년 7월 14일 접수: 2020년 8월 27일 수정: 2020년 8월 27일 채택)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and Self Leadership on Learning Commitment of Nursing Students

Mi-Young Lee^{1,*} · So-Myeong Kim^{2,†}

¹Dept. Nursing, Gwangju University

²Dept. Nursing, Catholic Sangji College

(Received July 14, 2020; Revised August 27, 2020; Accepted August 27, 2020)

요 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셀프리더십과 학습 몰입 정도를 파악하고,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 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D 광역시, G 광역시에 소재한 2개 간호학과 2학년 학생 19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자료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몰입은 학교 성적, 전공 만족도, 대인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습 몰입은 셀프리더십($r=.73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 성적($\beta=-.212, p=.011$), 전공 만족도($\beta=.248, p=.001$), 셀프리더십($\beta=.598, p<.001$)으로 나타났으며, 학습 몰입에 대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58%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학습 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공 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 간호, 대학생, 비판적 사고, 셀프리더십, 학습 몰입

Abstract :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learning commitment of nursing students.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nursing students in two different universities in D and G metropolitan city.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November 26 to December 7, 2018. Th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WIN 21.0. **Results:** Learning commitment of the participants showed statistical differences according to grade level, satisfaction in major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arning commit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 leadership ($r=.738$,

[†]Corresponding author

(E-mail: smkim@csj.ac.kr)

$p<.001$). The factors affecting learning commitment were the needs for grade level ($\beta=-.212, p=.011$), satisfaction in major ($\beta=.248, p=.001$) and self leadership ($\beta=.598, p<.001$) explaining 58% of the total variance of learning commitment. **Conclus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increase learning commitment in student nurs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 promoting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 leadership.

Keywords :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Self Leadership, Learning Commitm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최근 들어 성과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화하면서 학습 몰입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고[1], 비판적 사고와 간호 리더십은 주요 학습 성과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2].

간호교육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와 상호 협력적 학습활동의 요구가 증가되면서 학습 몰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3]. 학습 몰입은 학습자들의 주된 과업인 학업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개인의 능력과 과제 난이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 상태로 현재 임하는 과업에 온전히 몰두하는 것을 의미하며[4], 학습자가 학습 상황에서 주어진 과제에 완전히 몰두하여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경험을 의미한다[5].

학습 몰입에 대한 경험은 학습하고자 하는 호기심과 열망을 일으켜 좀 더 새롭고 어려운 수준의 과제에 도전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원동력이 되므로[6], 학과공부와 병원에서의 임상실습을 함께 해야 하는 간호 대학생은 자기주도적인 참여에 의한 학습활동 즉, 학습 몰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3, 7]. 학습 몰입이 높은 학생은 학습과정에서 집중, 흥미, 노력을 지속시키는 경향을 보이고[8], 학습 몰입은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10].

비판적 사고는 어떤 소견을 받아들이고 어떤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근거, 방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상의 판단을 내리는 능력으로[11], 특히 간호대학생이 독립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이는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 역량을 유지하고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12].

간호 대학생은 변화하는 대상자의 임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1]. 간호 대학생의 교육은 이론과 임상실습이 필수인 요소로 이론을 근거하여 대상자를 사정하고 간호 목표를 설정하여 근거를 찾는 지적 과정으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며[13], 간호사의 간호 수행 능력에 영향 주는 요인으로도 제시되고 있다[14]. 특히,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간호교육의 성과로 비판적 사고능력이 제시되면서 점차 비판적 사고를 위한 간호교육이 강조되고 있다[15].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간호 대학생부터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하며[1], 학습에 대한 문제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학습 몰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6].

비판적 사고 성향을 가진 학생일수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목표를 설정한 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다[17].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 행동 전략으로[18],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즉각적인 대처능력과 간호 상황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기회가 많으므로 간호사 개인이 셀프리더십을 지녀야 한다[19].

셀프리더십은 개인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이 주어질 때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끄는 힘으로[20], 개인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자아 관리의 능동적 역량과 자기내부의 발전적 동기부여를 통하여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21]. 또한, 셀프리더십은 선천적이 아니라 학습이나 교육을 통하여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는 개념으로[20, 22], 셀프리더십이 높은 개인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지녀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8].

셀프리더십이 높은 간호 대학생은 학업에 흥미를 느껴 학과 만족도를 높이고[23], 스스로가 책

임감을 느끼고 행동하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는 자율성, 주도성, 열정을 가지게 되며[24],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학습 몰입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25].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와 셀프리더십은 학습 몰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비판적 사고와 셀프리더십, 학습 몰입을 함께 확인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셀프리더십, 학습 몰입의 관계와 비판적 사고와 셀프리더십이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이 학습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셀프리더십, 학습 몰입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학습 몰입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셀프리더십 및 학습 몰입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습 몰입 정도를 파악하고 비판적 사고와 셀프리더십이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 광역시, G 광역시 소재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 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독립변수 8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크기는 136명으로 탈락률 20%를 고려한 본 연구의 대상자 수 196명은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D 광역시, G 광역시 소재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진행 절차를 충분히 설명한 후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 정보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비밀 보장 및 무기명 처리, 연구를 거부할 수 있음과 연구 참여 중 철회가 가능하며 연구 참여 철회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 220부를 배부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24부를 제외한 총 19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4. 연구 도구

2.3.1.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Yoon [26]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비판적 사고능력 도구로 이메일을 통해 도구사용의 허락을 받아 측정하다. 지적 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의 7요인 27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2.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Houghton 등[27]이 개발한 셀프리더십 척도(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RSLQ)를 Shin [28]이 번안하고 수정한 35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 [2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2.3.3. 학습 몰입

학습 몰입은 Suk 등[29]이 개발한 것을 Lee

[30]가 수정 보완한 35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몰입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비판적 사고, 셀프리더십 및 학습 몰입 정도는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몰입의 차이는 t-test 및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으로 확인하였으며, Scheffé 사후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셀프리더십 및 학습 몰입의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학습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해당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절차를 설명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하여 서면동의서를 받은 뒤,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단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설문에 응답 한 후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07세로, 성별은 여학생이 165명(84.2%), 남학생이 31명(15.8%)이었다. 학업 성적은 평점 3.0에서 3.9의 '보통이다'가 155명(79.1%)으로 가장 많았고, 전공 만족도는 '만족한다'로 답한 학생이 117명(59.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좋은 편이다'로 답한 학생이 108명(55.1%), '보통이다'로 답한 학생이 88명(44.9%)로 나타났다 <Table 1>.

3.2. 비판적 사고, 셀프리더십 및 학습 몰입 정도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는 5점 만점에 평균 3.70 ± 0.37 점,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69 ± 0.49 점, 학습 몰입은 5점 만점에 평균 3.44 ± 0.48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9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Age	<20	136	(69.4)	22.07±6.39
	≥21	60	(30.6)	
Gender	Male	31	(15.8)	22.07±6.39
	Female	165	(84.2)	
Grade level(average)	High (>4.0)	24	(12.2)	22.07±6.39
	Midium(3.0-3.9)	155	(79.1)	
	Low(2.0-2.9)	17	(8.7)	
Satisfaction in major	Very satisfied	36	(18.4)	22.07±6.39
	Satisfied	117	(59.7)	
	Moderate	43	(21.9)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08	(55.1)	22.07±6.39
	Moderate	88	(44.9)	

Table 2. The Critical Thinking, Self Leadership and Learning Commitment

	Mean ±SD	Min	Max	Possible range
Critical Thinking	3.70±0.37	1.00	4.80	1-5
Self Leadership	3.69±0.49	1.00	5.00	1-5
Learning Commitment	3.44±0.48	2.81	4.78	1-5

Table 3. Learning Commi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6)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 ±SD	t or F	P	Scheffe
Age	<20	3.44±0.51	0.149	.882	
	≥21	3.43±0.41			
Gender	Male	3.55±0.44	1.433	.154	
	Female	3.42±0.48			
Grade level(average)	High(>4.0) ^a	3.66±0.62	10.710	<.001*	b,c>a
	Midium(3.0-3.9) ^b	3.45±0.38			
	Low(2.0-2.9) ^c	3.00±0.74			
Satisfaction in major	Very satisfied ^a	3.91±0.41	36.052	<.001*	a>b>c
	Satisfied ^b	3.41±0.39			
	Moderate ^c	3.12±0.45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3.55±0.49	3.546	<.001*	
	Moderate	3.31±0.42			

* $P<.001$

Table 4. Correlation among Critical Thinking, Self Leadership and Learning Commitment (N=196)

	Critical Thinking	Self Leadership
	r (p)	r (p)
Self Leadership	-.076(.292)	1
Learning Commitment	-.045(.536)	.738(<.001)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몰입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몰입은 학교 성적($F=10.710$, $p<.001$), 전공 만족도($F=36.052$, $p<.001$), 대인관계($t=3.54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학교 성적이 '상'으로 답한 학생인 경우 '중'과 '하'로 답한 학생보다 학습 몰입이 높게 나타났고, 전공 만족도는 '매우 만족'으로 답한 학생이 '만족'으로 답한 학생과 '보통'으로 답한 학생보다 학습 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대인관계 좋은 학생이 학습 몰입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셀프리더십 및 학습 몰입 간의 상관관계

학습 몰입은 셀프리더십($r=.738$, $p<.001$)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3.5. 대상자의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

학습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판적 사고, 셀프리더십, 그리고 일반적 특성 중 학교 성적, 전공 만족도, 대인관계를 단계적(Stepwise) 방식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 성적, 전공 만족도, 대인관계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1.517로 자기상관이 없고, 공차 한계와 분산 팽창 인자를 이용하여 다중 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 한계가 0.1이상, 분산 팽창지수 10 이상을 넘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모형은 유의하였으며($F=90.661$, $p<.001$), 설명력은 58%로 나타났다. 학습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 성적($\beta=-.212$, $p=.011$), 전공 만족도($\beta=.248$, $p=.001$), 셀프리더십($\beta=.598$, $p<.001$)으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간호대학생은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경험하고[31], 학과 특성상 이론수업과 실습수업을 병행해야 하므로 학업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겪게 된다[32]. 학습 몰입은 학습에 깊이 몰두하여 재미와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감성을 가지는 것으로[5], 간호대학생이 좀 더 재미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몰입은 학

교 성적, 전공 만족도, 대인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적이 높은 경우 학습 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2]와 일치하는 결과로 학습 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결과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 학습 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Jeong 등의 연구[2]와 Kim의 연구[33]와 일치하는 결과로, 전공에 만족하므로 학습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전공 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학습 몰입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생활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등 간호대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이 학습 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g 등[2], Jeong 등[3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습 몰입을 증진하는 중요한 내적 조건은 성격이라는 선행 연구[35]에서 학습 몰입은 성격 중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이 영향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정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습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여 개인별 맞춤형 지도와 상담을 통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2]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교수자는 개개인의 성격에 따른 상담과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학습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교과

Table 5. Influence Factors on Learning Commitment

(N=196)

Variables	B	SE	β	t	p	F	p	R ²	Adjusted R ²
(Constant)	1.261	.183		6.871	<.001				
Grade level(average)*	-.212	.082	-.124	-2569	.011				
Satisfaction in major*	.248	.064	.200	3.877	.002	90.661	<.001	.586	.580
Interpersonal relationship*	.076	.050	.079	1.534	.127				
Critical Thinking	.030	.061	.023	.495	.495				
Self Leadership	.598	.051	.622	11.663	<.001				

*Dummy Variable; Grade level(ref=medium), Satisfaction in major(ref=moderate), Interpersonal relationship(ref=good)

외 프로그램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학습 몰입은 비판적 사고와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셀프리더십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와 학습 몰입에 관한 연구는 전문한 실정으로 추후 체계적인 연구 설계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몰입과 비판적 사고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 몰입과 셀프리더십이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 33]와 일치한다. 즉,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학습 몰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셀프리더십은 간호사가 되어서도 필요한 역량이다. 간호사의 리더십은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주고 직무만족과 질적 간호를 향상시킨다[36]. 그러므로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을 증진시켜 학습 몰입을 증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 학습 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셀프리더십이었으며, 다음으로 전공 만족도, 학교 성적 순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이 학습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 33]와 일치하며, Kim과 Park[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셀프리더십이 학습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증가할수록 학습 몰입 또한 증가되어 학습 몰입에 있어 셀프리더십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한 선행 연구결과[2]를 지지한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생을 편의 표집하여 검증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적용된다면 학습 몰입 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학습 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시 셀프리더십과 전공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간호대학생의 학습 몰입 증진을 위해서는 전공 만족도와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셀프리더십이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학교 성적, 전공 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이 학습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나타났으며, 학교생활 적응을 5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간호대학생의 학습 몰입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간호대학생의 학습 몰입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증진을 위한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추후 연구에는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를 시행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셀프리더십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S. H. Lim, "The Effects of Adult Nursing Education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Learning Commitment,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Using the Havruta Learning Metho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7, pp. 547-554, (2019).
2. S. E. Jeong, J. H. Ha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elf-leadership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 25, No. 4, pp. 393-404, (2019).
3. S. H. Kim, S. Y. Park,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3, pp. 1557-1565, (2014).

4. S. R. Noh, S. A. Bae,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rning Flow on College Adaptation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4, No. 2, pp. 343-362, (2014).
5. M. Csikszentmihalyi,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1st ed.).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6).
6. S. J. Lee, "The Effect of Flow on Learning and Self-efficacy on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5, No. 2, pp. 235-253, (2011).
7. H. K. Lee, L. A. Kim, J. E. Kim, Y. R. Lee, J. M. Lee, H. S. Han & H. K. Hwang, "Converged Factors Affecting Learning Flow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7, No. 5, pp. 15-23, (2017).
8. H. M. Marks, "Student engagement in instructional activity: Patterns in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year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37, No. 1, pp. 153-184, (2000).
9. S. R. Noh,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rning flow on college adaptation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4, No. 2, pp. 343-362, (2014).
10. S. J. Lee, "The path analysis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class climate, and learning flow on academic achievement in elementary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23, No. 4, pp. 207-227, (2010).
11. J. Yoon,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 focusing on a school applying integrated nursing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4, No. 2, pp.159-166, (2008).
12. J. J. Hoffman, "Chapter 12 teaching strategies to facilitate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Annual Review of Nursing Education*, Vol. 6, pp. 225-236, (2008).
13. E. H. Kim, "A Study on the Ego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atisfaction in Maj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 4, No. 4, pp.720-729, (2016).
14. M. J. Baek, W. J. Kim, H. S. Ryu, "Influencing factors of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5, No. 6B, pp. 3353-3365, (2013).
15. S. O. Chang, E. S. Kong, C. G. Kim, H. K. Kim, M. S. Song, S. Y. Ahn, Y. W. Lee, M. O. Cho, K. S. Choi, N. C. Kim, "Exploring nursing education modality for facilitating undergraduate students' critical thinking: Focus group interview 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Vol. 25, No. 1, pp.125-135, (2013).
16. J. A. Kim, B. G. Bak, "Development and confirmation of the theory of learning flow processes: A sequential mixed method of grounded theory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7, No. 1, pp.241-262, (2013).
17. G, A, Seomun, "The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Job Satisfaction, and Perceived Outcome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1, No. 1, pp. 45-48, (2005).
18. C. C. Manz, H. P. Jr. Sims, *Business without bosses - How self-managing teams are building high-performing companies*, New York, John Wily & Sons, (1995).

19. Y. S. Kang, Y. J. Choi, D. L. Park, I. J. Kim,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6, No. 2, pp. 143-151, (2010).
20. C. C. Manz, H. P. Sims, "Super-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Vol. 19, No. 4, pp. 18-35, (1991).
21. M. K. Jang, H. Y. Kim,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elf-esteem on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2, pp. 51-59, (2018).
22. Y. S. Lee, S. H. Park, J. K. Kim,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nati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6, pp. 229-240, (2014).
23. S. I. Park, Y. K. Kim, "An inquiry on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ing-flow factor, flow level, achievement under on-line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 14, No. 1, pp. 93-115, (2006).
24. J. H. Lee,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meta-cogn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nd school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8, No. 2, pp. 67-92, (2010).
25. S. H. Kang,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Self Efficacy on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4, no. 6, pp. 935-949, 2012.
26. J. 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2004).
27. I. B. Suk, E. C. Ka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earning flow scal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23, No. 1, pp.121-154, (2007).
28. J. H. Lee,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metacogn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nd school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8, No. 2, pp.67-92, (2010).
29. J. D. Houghton, C. P. Neck,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 17, No. 8, pp.672-691, (2002).
30. Y. K. Shin, M. S. Kim, Y. S. Han,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6, No. 3, pp.313-340, (2009).
31. H. J. Choi, E. J. Lee,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c Fundamental Nursing*, Vol. 19, No. 2, pp. 261-268, (2012).
32. S. E. Newton, L. H. Smith, G. Moore, M. Magnan, "Predicting early academic achievement in a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Journal of Professional Nurse*, Vol. 23, No. 3, pp. 144-149, (2007).
33. Y. M. Kim,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tween Self-leadership and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7 pp. 112-122, (2016).
34. C. Y. Jeong, E. H. Cho, Y. S. Seo, "The Relations of Nursing Students' Metacognition and Learning flow",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 6, No. 1, pp. 1048-1055, (2018).

35. B. Mesurado, M. C. Richaud de Minzi, "Child's personality and perception of parental relationship as correlates of optimal experienc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14, No. 1, pp. 199-214, (2013).
36. M. H. Sung, M. Y. Lee, "Effects of self-leadership, clinical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on nurses' job involvement",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23, No.1, pp.1-8, (2017).